

성 유대절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d.org)
 사무실: 3447-0750~1 팩스: 3447-0752

주 임 신 부 : 주경수(세바스티아노)
 1 보좌신부 : 서기원(바오로)
 2 보좌신부 : 박현성(안토니오)
 전 교 수 녀 : 이정미(마르첼라)
 정정순(큰체사)
 김정현(마크리나)
 사 목 회 장 : 장병철(올리아노)
 연 령 회 장 : ☎ 010-5411-5837

주일미사	토요일 15시 (초등부), 토요 저녁미사: 19시 / 주일: 6시, 9시, 11시(교중미사), 15시(중고등부), 17시, 19시		
평일미사	월 ~ 토 : 6시 / 화 ~ 금 : 10시 / 화 ~ 금 : 19시	고해성사	주 일 미사 전 30분 평 일 미사 전 15분
봉 성 체	매월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		
관면흔배	매월 셋째 토요일 17시	유아세례	출수 달 첫째 토요일 17시

소 식

금주의 성경 암송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에페 2,10)

- ◎ 사제·수도자 인사이동
 - * 사제 인사이동에 따라 2월 16일자로 박현성 안토니오 신부님께서 명동 주교좌 본당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 * 수녀원 인사이동에 따라 2월 18일자로 김정현 마크리나 수녀님(새소임지: 까리따스 수녀원 본원)께서 본당을 떠나시고 새로이 박선옥 에드워드 수녀님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 * 그동안 본당사목을 위해 애써주신 박 안토니오 신부님과 김 마크리나 수녀님을 위해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승별 미사:** 2월 14일 (주일) 교중미사
 * **환영 미사:** 2월 21일 (주일) 교중미사

◎ **구정 합동위령미사시간 안내**

2/8 (월)	오전 6시 (분향) 11시 (분향 및 연도) 오후 7시 (분향)	당일 미사는 설 합동 위령미사로 드립니다.
---------	---	-------------------------

- * 위령미사예물을 접수 못하신 분들께선 당일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 **재의수요일 예식(단식 및 금육)**
 - * 일 시: 2월 10일(수) 6시, 10시, 19시
 - * 2월 10일(수)은 재의 수요일로서 재의 예식을 거행하고 금육재·단식재는 설 명절기간으로 2월 12일(금)로 이동하여 지킬 것을 교구장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 ◎ **세계병자의 날 환우를 위한 미사 및 안수 축복식**
 - * 일 시: 2월 11일(목) 오전 10시 미사
- ◎ **2016년 예비신자 환영식 및 봉사자 모집**
 - * 일 시: 2월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 2층 대성전

요 일	시 간	강 사	구 분
화요일	오후 8시	보좌신부	성인반
주일반	오전 9시20분	전교수녀	

- ◎ **본당 환경개선을 위한 봉헌 안내**
 - * 1층 환경개선과 카페개설을 위해 필요한 스테인드 글라스, 커피머신과 카페 용품, 테이블, 의자, 대성전 방석과 출입문 교체를 위해 교우 여러분의 봉헌을 받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목표액: 3억원**)

환경개선 건축비	7억원 (부가세 별도)
환경개선 봉헌금 누계	61,430,000원
환경개선봉헌금 계좌: 우리 1005-102-087917 (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 ◎ **예비신자 봉사회 ‘주일반 봉사자’ 모집**
 - * 문 의: 손덕규 세베로 (010-6352-3533)
- ◎ **청년 레지오마리에 활동단원 모집**
 - * 봉사 및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레지오 활동단원을 모집합니다.
 - * 일 시: 매주(월) 20시, (주일) 9시, 17시 중 선택
 - * 문 의: 이현경 안젤라(010-8318-0001)
- ◎ **쌍투스성가대 챔버단 단원모집**
 - * 청년미사에 쌍투스 성가대와 함께 할 챔버단을 모집합니다. 관현악기를 다루시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 문 의: 박효주 효주아네스 (010-9370-2778)
- ◎ **청년 성서모임 그룹원, 봉사자 모집(~2/21마감)**
 -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성경공부
 - * 문 의: 신기주 바오로베네딕도(010-7746-7072)
- ◎ **청년 전례단 ‘Lafamilia’ 신입단원모집**
 - * 미사 전례봉헌 하실 청년신입단원을모집합니다.
 - * 문 의: 박선호 사도요한(010-2006-7394)
- ◎ **엠마오 태백산 눈꽃여행**
 - * 일 시: 2월 20일(토) 06:40 성당출발
 - * 준비물: 아이젠, 방풍·보온자켓, 간식, 회비(4만5천원)
 - * 연락처: 전 도미니카 (010-3297-6738)

모 임

- ◎ 2월 7일(주일) : 예비신자 봉사회 월례회
- ◎ 2월 8일(월) : 성령기도회(강사:함옥숙 데레사)
- ◎ 2월 10일(수) : 성모회
- ◎ 2월 13일(토) : 태교모임

성가번호 입당: 29 예물준비: 210, 218 성체: 188, 500, 179 파견: 자비의 희년성가

화 답 송

주 님 천 사 들 앞 에서 찬 미 노 래 부 르 나 이 다.

心安堂의 책가방

S는 사십오년 동안 아픈 정, 고운 정 나누며 지내온 동갑내기 사촌 시누이다. 나의 시집살이가 서툰 새댁시절에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대변인도 되어 준 시댁쪽 친구이다. 작달막한 키에 반듯한 이마를 가진 그녀는 얼핏 보아도 다부져보인다. S는 일상이 부지런하고 야무지다. 두려움이나 어려운 일도 잘 웃으며 가볍게 헤치고 살아 왔다. 그녀는 못하는 일이 없다.

S의 호는 심안당(心安堂)이다. 그의 남편이 붙여 준 아호이다.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서 인지 서예가이자 한학자인 그녀의 남편이 그렇게 지어주었다. 그녀의 남편이 위암에 걸렸다더니 검사를 하다 보니 삼년 전에 수술 받았던 신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였다.

그때의 겁나고 두려웠던 마음에 남편 없이는 못살 것 같아서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졌다. 남편의 학식과 기량을 그대로 보낼 수 없다는 거였다. 무식하고 쓸모없는 자기가 갔으면 한다고 눈물을 쏟았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어 나는 안경만 껴다 벗었다 수차례 하다가 헤어졌다. 손을 흔드는 그 옆에는 십인 분 압력 밥솥만한 무게와 크기의 바퀴달린 가방이 그녀에게 움켜잡힌 채 나란히 서있다.

칠십 년 이상 살아온 여인들의 가슴 속은 색깔이 다른 자루가 여럿이다. 배웠으면 배운 대로 후회가 남고,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회한이 남으니 내 친구 심안당의 마음자루에는 많고도 더 많은 뜻을 담겼으리라.

지방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남편과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온 심안당은 서울생활이 시작되면서 고달파졌다. 칠팔십년 대를 살아온 여인들의 희망이자 목표인 남편의 출세와 두 아들의 교육을 위한 희생과 투신이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일과 많은 형태의 노력으로 가정은 정상에 올랐으나, 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무릎의 연골이 닳아서 한쪽 무릎을 수술해야 하는 불상사를 겪게 되었다. 항상 못배운 것이 통탄스럽던 심안당은 검정고시 학원에 혼자 가서 등록하더니 여러 해 공부를 이어갔다. 어렵고, 외롭고 서러운 학습이었다. 그리고 이즈음에는 영어와 중국어의 공부에도 열중한다.

심안당의 가방에는 책과 큰 필통, 약, 물 그리고 도시락과 아름다운 열망과 행복한 희망이 섞여있다. 종종 참기름이나 편강 말린 것도 담겨 내게 온다.

심안당은 손끝이 여물어 남편의 선비의상을 잘 꾸며 입히고 찬방에서 활약하는 찬모의 매운 솜씨까지 고루 갖추었으니 그 머릿속은 빈 자리가 없을 것이다. 자기 약점을 부끄럼 없이 털어 놓고 조언을 구한다. 이들에 한 번은 꼭 안부를 묻고 고충을 들려주고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했다. 그런 심안당이 내가 믿는 하느님을 자신도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관할구역 성당에 안내하여 입교하게 하였고, 교리공부를 하는 동안 개근을 하며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도 받았다. 먼저 배운 내가 부끄럽게 그녀는 배운다는 겸손과 성서와 기도를 가바영 담고 오늘도 버겁게 끌고 다닌다. 가방을 작게 줄이라는 내 말이 무색하다.

< 수필반 최옥연 제노베파 >

♣ 환경 개선 봉헌금

환경개선 봉헌금 (2/3 현재)					
박 아우구스티노	200,000	이 요한	600,000	심 아타나시아	200,000
윤 에드몬드	100,000	박 글라라	300,000	이 베로니카	100,000
유 베난시오	300,000	김 아오스딩	100,000	남성구역장 일동	1,400,000
신 루까	300,000	이 아네스	150,000	익 명	1,000,000
박 글라라	150,000	김 도로테아	330,000		
(1월28일 ~ 2월3일) 합 계			5,230,000		
총 누 계			61,430,000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 헌 예 목		감사헌금 (2/3 현재)				교무금 납부 현황	
교 무 금	32,571,000	연 모니카	100,000	한 로사	100,000	총 세대수	3,741
주일 봉헌금	11,278,680	최 사도바로	80,000	손 카타리나	50,000	총 납부세대	521
2차 헌금	7,334,720	천 야고보	300,000	한 마리아	100,000	지난주 납부세대	208
성소후원금 (13건)	209,000	천 스테파노	300,000			지난주 납부율 (%)	13.9%
		합 계 :1,030,000					